

일자리 찾아…떠나는 청년들

호남권 인구 올 1만2천여명 감소…제주만 1만명 늘어
광주 올 4661명 중 20대 51%…청년 구직이 주원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청년 창업 지원 등 대책 시급

올해 3분기 광주와 전남·북 호남권의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3분기 호남·제주지역 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북 호남권 인구는 521만7000명으로 4334명이 순유출됐다. 지역별 순유출 인구는 광주가 458명, 전남 1875명, 전북 2001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의 올 들어 인구 유출은 1분기 2248명, 2분기 1955명 등 9월 말까지 466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대의 비율이 51%(2354명)에 달했다. 광주 인구는 2011년 1279명 순유입을

마지막으로 ▲2012년 1825명 ▲2013년 2592명 ▲2014년 2977명 ▲2015년 9272명 ▲2016년 7898명이 유출돼 5년 연속 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 3분기에 1875명이 유출돼 인구는 189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50대 432명과 60대 290명, 40대 242명이 순유입됐지만 20대 1652명과 10대 500명, 10세 미만 256명 등이 순유출돼 전체 인구는 감소했다. 전남의 경우 2010년 1만61명을 시작으로 ▲2011년 5222명 ▲2012년 5054명 ▲2013년 2306명 ▲2014년 596명이 타 지역으로 순유출됐다. 2015년 나주 혁신도시

등의 조성으로 3936명이 순유입돼 인구 증가를 기대했지만 지난해 다시 3205명이 떠났고 올해도 9월말까지 5420명이 줄었다. 전북의 경우도 상황이 비슷해 이 기간 인구는 185만5000명으로 2001명 순유출됐다. 60대(229명)와 50대(209명)는 순유입됐지만, 20대(1616명)와 30대(424명), 10대(272명), 10세 미만(72명), 70세 이상(55명) 순으로 순유출을 기록했다. 반면 제주 인구는 65만3000명으로 올해 들어 순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4353명에 달했다. 분기별 순유입 인구는 1분기 2985명, 2분기 3209명이다. 호남권 취업자 수는 258만9000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만3100명 감소했다. 광주는 1만4100명이 증가한 반면 전남과 전북은 각각 2만2600명, 3만4600명 감소했다. 제주권 취업자 수는 3만7800명으로 2만1600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분기마다 호남권 인구 유출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는 통계청 등이 최근 집계한 올해 2분기(4~6월) 청년고용률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광주지역 청년고용률(15~29세)은 35.0%. 전남 34.7%로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광주·전남을 제외한 비수도권(39.6%)이나 수도권(45.3%)과 비교해도 평균 5.7%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바로잡고 청년창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기업 등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과 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판로 개척 등 창업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35.20 (+16.95)	▼ 금리 (국고채 3년)	2.17% (-0.01)
▲ 코스닥	780.14 (+12.11)	▼ 환율 (USD)	1101.40원 (-10.90)

분양권 전매제한…광주 654가구 분양

중흥건설 임동2구역 재개발…5개 광역시 연내 총 7200가구

지난 10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시행되기 시작한 광주를 포함한 지방 5개 광역시에서 연내 7200여 가구가 분양된다. 16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까지 지방 5개 광역시에서 분양 예정인 물량(아파트 기준, 연내 시가미정인 사업장 제외)은 총 7191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200여가구 줄어든 수준이다. 8·2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기장군을 포함한 7개구(군) 가운데 기장군은 최근에 청약률이 낮아져 6개월 전매 제한이 적용됐고, 나머지 6곳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를 금지했다. 이밖에 광주를 포함한 다른 광역시들은 예고된 대로 6개월 전매 제한이 확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11월 중순 이후 입주자를 모집(17일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사

업장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되기 때문에 분양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매 금지가 아니라 6개월 등 일정 기간 후에 전매가 가능한 곳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당장 급격한 분양시장 위축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부산에서 전매금지가 본격 시행되는 6개구는 청약자 수 감소가 불가피하겠지만 청약 미달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이로 인해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위축을 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여전히 비교적 젊은 6개월 전매제한인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내 광주시에서 분양하는 주요 단지로는 중흥건설이 북구 임동 임동2구역에 재개발에 짓는 ‘중흥 S클래스’ 전용 39~84㎡ 총 654가구다. 이중 440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전, 신재생사업자에 ESS 임대 ‘상생 협업 모델’

강진 소재 ‘탐인프라’와 계약

투자비 줄여주고 사업 참여 기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한익)와 탐인프라(사장 양홍석)는 지난 15일 한전 본사에서 태양광연계용 대용량 ESS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10MW 영암 태양광발전소(탐인프라 소유, 전남 강진군 소재)에 한전은 5MW(PCS)/26MWh(배터리) 규모의 태양광연계용 ESS설비를 구축, 연계하여 탐인프라에게 10년간 임대해주고 탐인프라는 기간 만료 후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다.

이번 태양광연계용 ESS 렌탈 계약 체결을 계기로 중소규모 신재생 사업자에게 투자비 부담을 줄이고 ESS사업 참여의 기회를 주는 상생 협업 모델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전은 태양광발전소의 불안정한 출력을 태양광연계용 ESS를 통해 해소할 수 있으며 설비 임대료에 따른 수익이 예상된다. 김동섭 한전 신성장기술본부장은 “주

파수조정용 ESS 구축경험으로 이번 태양광연계용 ESS 렌탈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에너지산업에 대한 새로운 모델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전은 향후 렌탈 사업을 희망하는 신재생 사업자(태양광 3MW이상, 풍력 10MW이상)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고 사업자를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산업진흥회, 러 ‘국제조명전시회’서 37억 수출계약

9개社 참가…광주 소재 웨이브시스컴·케이원케이 호평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최근 개최된 러시아 국제조명전시회에서 330만 달러(37억 100만원) 규모의 수출계약 성과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광주시의 해외마케팅지원사업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2017 러

시아 국제조명전시회’에 국내 LED 조명 기업 9개사를 이끌고 참여했다. 공동홍보관 운영을 통해 국산 LED 조명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적극 지원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친 끝에 이 같은 성과를 일궈냈다. 이번 전시회에서 광산업진흥회의 지원

을 받은 위지아이 등 국내 9개 기업은 러시아 현지 기업과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LED 조명 소재부품 구매 상담 활동을 통해 수출 상담에 1100만 달러(123억3600만원) 실적을 달성했다. 또 웨이브시스컴 등 3개사는 현지 기업인 추릴로바사, 아그로인베스트사, 모스코브스키사와 33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특히 광주소재 기업 웨이브시스컴과 케이원케이사는 식물재배에 열악한 환경을 가진 러시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식물공장 LED 조명’을 선보여 큰 호응을 받았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현재 국내 광산업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중국의 저가공세에 밀려 경쟁력이 약한 편이지만 광산업진흥회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지원과 틈새시장 발굴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시중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경총 뛰어올랐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이날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6개월 변동 금리)를 전날 2.92~3.92%에서 3.02~4.02%로 0.1%포인트 올렸다. 최고금리는 올 6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잔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01~4.01%에서 3.02~4.02%로 0.01%포인트 인상하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와 잔액 기준 금리가 동률을 이뤘다. 농협은행도 신규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가 2.73~4.32%에서 2.83~4.42%로, 잔액 기준의 경우 2.82~4.41%에서 2.83~4.42%로 인상되면서 동일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농협은행의 신규 기준 코픽스 연동 대

출 금리의 최고금리는 2016년 1월 자료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신규 기준 코픽스 연동 상품의 금리는 2.87~4.18%에서 2.97~4.28%로 뛰었다. 금리 범위의 상단은 지난 2월 이후 가장 높아졌다.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상품의 금리는 2.86~4.17%에서 2.87~4.18%로 오르면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그간 시장금리 변화를 전천히 반영하는 잔액 기준 대출 금리가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보다 높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시장금리가 뛰어오르면서 이 같은 경향이 뒤집히고 있다. 이 같은 금리상승은 전일 은행연합회가 공식한 10월 코픽스 상승에 따른 것이다. 코픽스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서 기준이 되는 지표다.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보다 0.1%포인트 높은 1.62%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며, 금리상승 폭 역시 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0.01%포인트 오른 1.62%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8억7천7백만원 (평당 170만원)

공산면,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5200만원(조정가)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9억9천6백만 (평당 70만원)

비금도, 팻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5억

거문도,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61-1
- 토지 49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4900만원 (조정가)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800만원(조정가)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